

非自生的 都市成長과 成長要因의 外部性에 대한 研究*

金 東 賢**

《차 례》	
1. 序 論	1945년
2. 都市化와 都市成長의 理論的 接近	(3) 解放에서 現在까지—1945년 以後
3. 釜山의 都市成長過程	4. 非自生的 都市成長
(1) 開港前의 釜山—19C 以前	5. 都市成長의 外部要因
(2) 開港에서 解放까지의 釜山—1876년~	6. 結 論

1. 序 論

오늘날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世界的으로 가장 두드러진 社會變動의 하나로 都市化(Urbanization)를 들 수 있다. 韓國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都市化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주택·환경 문제 등의 都市內部問題와 國土의 地域間 不均衡問題라는 都市外部的인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韓國의 都市化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都市化의 要因, 都市化의 影響, 都市化에 따른 問題 등을 다루고 있고, 都市化에 대한 체계적인 理論이나 思想이 결여되어 있다.¹⁾ 또한 도시체계의 기본단위가 되고 전체도시의 성장유형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별도시에 대한 연구가 없는 편이다.

그런데 韓國의 都市化에 대한 몇몇의 연구에서는 都市化의 要因이 국내적인 社會狀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外部的인 것이라 보고 있다.²⁾ 즉, 공업발달을 토대로 근대산업도시로 발전한 歐美의 도시들과는 달리 韓國의 도시들은 外勞의 影響에 의해 근대도시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체계의 왜곡과 불균형, 지역격차문제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흔히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는 自己完結的, 自給自足이 가능한 도시로 간주되고, 외부여건변화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경제여건의 조성능력이 큰 도시로 간주된다.³⁾ 그러나, 韓國의 제 2 도시로 성장한 大都市인 釜山은 成長過程에서 外部與件변화에 많은 影響을 받았고, 현재도 규모에 맞는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自發的인 成長을 할 수 있을

* 本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 論文임. 指導敎授이신 金仁善先生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碩士課程 卒業.

1) 姜大基, 1987, 現代都市論, 民音社, p.105.

2) 南宮勇根, 1969, “韓國의 都市化에 관한 研究—32個 市를 中心으로 한 人口學的 側面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柳基淑, 1984, “도시성장에서 국가와 이익집단들의 역할—한국 도시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적용을 위하여—”, 社會調查研究, 제 3권, 제 1호,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pp. 51-64.

Hwang, M.C., 1987, “Structural Change in Pusan Economy and a Guiding Vision for the Future,” 地域研究, 제 3권, pp. 1-9.

3) 정봉화, 1980, “한국도시의 인구성장—1960년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사회학, 제 4권, p. 145.

金 仁, 1986, 現代人文地理學 一人間과 空間組織, 法文社, p. 303.

4) Hwang, M.C., op. cit.,

金元經, 1984, “釜山市 內部的 階層構造에 관한 研究(1) —主要商店街의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釜山女大論文集, 제14집, pp. 379-473.

것이라고 간주되는 大都市인 釜山의 成長過程이 非自發的, 外部힘⁵⁾에의 의존이라는 가정하에, 釜山 都市成長過程을 살피고 그 成長過程에 영향을 준 外部힘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2. 都市化와 都市成長의 理論的 接近

都市成長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生態學的 接近을 들 수 있다. 生態學的 接近은 都市의 成長過程과 地域分化現象을 生態學的 概念과 原理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大都市에 공해, 범죄, 주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그 본질을 규명하는데 기존의 生態學的 接近方式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Marx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도시사회의 構造的 矛盾을 밝히고자 한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的 接近이다. 政治經濟學的 接近은 도시의 모순과 갈등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고, 國家의 역할을 분석변수로 끌어들이므로써 資本主義都市의 성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⁶⁾

資本主義都市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은 資本主義의 기본속성과 그 모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도시과정(Urban Process)을 그 도시가 위치해 있는 전체사회의 일반적인 經濟的·政治的·歷史的 變인들과 관련시키고, 現代 資本主義體制속에 존재하는 도시들의 제반 특징과 문제들을 資本의 축적과 流通의 力動性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한다.⁷⁾

資本主義都市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 M. Castells와 D. Harvey를 들 수 있다. M. Castells는 도시공간을 集合的消費(collective consumption)⁸⁾의 場으로 이해하고 도시위기를 集合的 消費의 위기라는 측면으로 파악했고, 도시위기를 해결하려는 國家의 機能과 限界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그는 都市化過程에 대한 歷史的 研究가 도시문제에 접근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⁹⁾ 저발전국의 도시화과정은 서구의 資本主義 生産樣式이 기술·경제·사회수준이 뒤떨어진 지역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는 근대화의 진행이 아니라 발전에 내재된 모순이 나타나고,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從屬에 의해 규정된 발전으로 보았다.¹⁰⁾

D. Harvey는 剩餘概念을 통해 都市와 都市化에 관해 논의했고,¹¹⁾ 또한 資本蓄積과 階級鬭爭이 都市化過程을 이끈 요인으로 보았다.¹²⁾ 그는 資本循環의 논리를 통해 都市의 社會的·經濟的 문제로 표출되는 계층간의 갈등을 도시공간의 構造的 矛盾과 관련지어 해석했다. 政治經濟學的 接近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 都市에 대한 從屬理論的 接近은 開發途上國의 低發展的 都市化過程을 파악하고 이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從屬理論의 개념을 도시에 적용시킨 연구경향이라 볼 수 있다.

都市에 대한 從屬理論的 接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시체계개념을 국가범위 이상으로 확대시켜 從屬과 世界體制에서의 위치를 통해 도시 분석을 한 것과,¹³⁾ 開發途上國의 發展過程을 설

5)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영향, 외부여건의 변화, 사회변동 등을 외부(적)힘(external force)로 정의한다.

6) 김왕배, 1987, "자본주의 도시와 정치경제학적 접근," 연세사회학, 제 8호, p. 35.

7) Ibid, p. 9.

8) 주택, 학교, 병원, 사회문화시설 등의 휴식과 유흥,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비이윤적 소비재를 말한다. 이들은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기능하고, 도시는 집합적 소비를 제공하는 노동력의 재생산단위가 된다.

9)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Edward Arnold, London, p. 7.

10) Ibid, p. 63.

11) 최병두(역),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12) Harvey, 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Basil Blackwell, Oxford.

13) Firebaugh, G., 1985, "Core-Periphery Patterns of Urbanization," Timberlake, M. (ed.), Urbanization in the World-Economy, Academy, Press, Florida, pp. 293-314.

Meyer, D., 1986, "The World System of Cities: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Financial Metro-

명하기 위해 등장한 從屬的 發展論¹⁴⁾을 기초로 低開發國의 都市化를 파악한 연구,¹⁵⁾ 그리고 從屬理論을 원용하여 도시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¹⁶⁾

從屬理論을 적용하여 도시분석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 B. Roberts(1978)을 들 수 있다. 그는 도시현상을 단순히 도시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國家體系 및 世界體系와 관련시켜 설명했고, 中心一周邊 관계를 종속관계로 파악했다. 또한 그는 남미의 도시화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확장의 산물이라고 보았다.¹⁷⁾

都市化에 대한 生態學的 接近, 政治經濟學的 接近, 從屬理論의 接近은 각각 都市化에 대한 해석에서 유용한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개별접근방법으로는 도시화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이들 접근방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도시화에 대한 보다 나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3. 釜山의 都市成長過程

(1) 開港前의 釜山—19C 以前

朝鮮時代의 釜山은 하나의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니라 東萊縣(朝鮮後期에는 都護府)에 속해 있었다. 당시의 釜山은 山地가 많은 까닭에 충분한 農業經濟의 토대가 없었고, 營·鎭 등의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半農半漁의 村落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對日本관계를 위해 貿易과 外交를 위한 倭館을 설치하였다. 日本과의 관계에서 나

은 軍事機能과 貿易活動은 釜山의 주요 기능이었고, 倭館은 日本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釜山都市成長의 母體가 되었다.

(2) 開港에서 解放까지의 釜山—1876년~1945년

1876년 2월 27일 강압에 의해 朝鮮과 日本간에 맺어진 朝日丙子修好條規〔江華島條約〕은 朝鮮에 의무만을 강요하는 不平等條約이었고, 朝鮮이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朝鮮은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게 되었다.¹⁸⁾

開港以後의 釜山의 都市成長은 모든 부문에서 조선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日本人에 의한 공업, 무역, 금융의 독점이 이루어졌다. 개항후 釜山에 설치된 근대공장은 음식료공업과 농산물가공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釜山港을 통한 무역은 對日本貿易으로서 수출품은 米穀이나 水産物 등의 1次産物, 수입품은 농산가공품이나 직물, 공업제품 등이어서 植民地의 經濟構造를 나타내었다.

通商을 목적으로 설치된 日本專管居留地는 성격이 변모되어 軍事的 目的으로 이용되었고, 조선인의 의사가 전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日本人에 의해 都市計劃이 이루어지고 근대도시로 변모되었다. 專管居留地는 개항전의 釜山의 中心이었던 釜山鎭일대를 대신하여 釜山의 中心地가 되어 都市構造를 변모시켰으며 日本의 準領土化되었다.

polises and South America Cities,” Social Forces, Vol. 64, pp.553-581.

Walters, P.B., 1985, “Systems of Cities and Urban Primacy: Problem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Timberlake, M., op. cit., pp.63-85.

14) 종속적 발전론은 초기 종속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종속적 발전론의 기초는 국내기업, 다국적기업, 그리고 국가간의 3者 連合이며, 종속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종속하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종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15) Kentor, J., 1981,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ipheral Urbanizati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epen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201-211.

Timberlake, M. and Kentor, J., 1983, “Economic Dependence, Over-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Study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24, pp.489-507.

16) Lovejoy, S. and Krannich, R., 1982, “Rur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domestic dependency relations,” Rural Sociology, Vol. 47, pp.475-495.

Fair, T.J. and Browett, J.G., 1979, “The Urbanization Process in South Africa,” Herbert, D.T. and Johnston, R.J.(ed.), Geography and Urban Environment, Vol. 2, pp.259-294.

17) Roberts, B., 1978, Cities of Peasants, Edward Arnold; London, pp.11-35.

18) 金鎬逸, 1982, 韓國開港前後史, p.126.

合邦과 더불어 釜山은 釜山府로서 독립적인 行政單位로 승격했다. 開港 이후 釜山의 日本人數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1914년에 釜山府의 인구의 半이 日本人이었다.¹⁹⁾

合邦以後 日帝는 본격적으로 植民地經濟政策을 통해 朝鮮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釜山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합방직후 釜山의 工業은 農產物加工業이 압도적이었으며 公業은 농업에 기생적이었다.²⁰⁾ 1930년대 말기에는 대륙침략을 위한 重化學工業의 성장이 활발하였다. 무역구조도 對日貿易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금융·상업도 日本人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民族資本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植民政策에 따른 都市計劃에 의해 釜山은 日本都市로 변모되었고, 專管居留地는 상업지역으로 변모되었다.

日帝 36년간 朝鮮은 植民政策에 의해 社會構造가 기형적으로 성장되고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釜山은 植民都市로서 급속히 성장했다.

(3) 解放에서 現在까지—1945년 이후

解放과 더불어 釜山은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日帝時代동안 日本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부산은 일본인의 퇴거로 어느 지역보다 심한 혼란을 겪었다.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던 경제부문의 주체가 변했다.

解放과 6.25를 거치는 동안의 심각한 사회혼란은 釜山의 인구를 급격하게 성장하게 했다. 歸還同胞 뿐만 아니라 越南避難民에 의한 급격한 인구성장은 都市內部의 혼란상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動亂中 臨時首都의 釜山遷都는 釜山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解放後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釜山經濟는 援助經濟로 성격지워진다. 미국과 U.N.

의 원조를 바탕으로 釜山은 工業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무역과 경제활동은 거의 원조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과 6.25를 거치는 동안의 社會的 混亂은 釜山이 非正常的인 급속한 都市成長을 하게 했고, 이에 따라 인구, 경제, 도시내부구조는 자체의 力動性和 유리된 채 이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60년이후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產業化와 都市化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1962년부터 시행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 등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公業화와 도시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高度의 經濟成長과 輸出主導經濟構造下에서 釜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韓國 제1의 貿易港으로서의 지위는 釜山의 公業발달을 유도하여 부산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釜山工業을 주도한 것은 신발, 섬유, 전자 등의 輕工業製造業으로서 이들은 수출주도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들어 輕工業위주의 위약한 산업구조로 말미암아, 釜山의 경제는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부문의 전국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했다.

釜山의 公業구조의 위약성에 영향을 준 것은 輕工業위주의 公業구조 뿐만 아니라 주요기업의 本社가 타지역, 특히 서울에 입지하여 經濟意思決定이 釜山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1986년말 현재 分工場이 釜山에 있고 本社가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247개중 서울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수가 217(88%)개가 된다.²¹⁾ 또한, 上場企業과 證券監督院에 등록된 업체중 서울본사소재 釜山分工場企業을 볼 때 음·식료품제조와 섬유·의복제조기업의 비중이 높고, 종업원규모와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들이었다.²²⁾

19) 1914년에 釜山府로 승격했는데, 총인구 55,094人중 日本人數는 28,254人으로 전체인구의 51.3%를 차지했다.

20)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74, 釜山市誌(上), p.1021.

21) 大韓商工會議所, 1987, 全國企業體總覽 참조.

22) 매일경제신문사, 1987, 會社年鑑 참조. 이들 기업수는 총 50개이고 이중 음·식료제조, 섬유·의복제조 기업수가 28개이다. 또한 종업원 규모와 자본규모를 볼 때 종업원 규모 1,000人 이상의 기업이 30개, 자본금 100억 이상이 23개였다.

표 1. 지역산업 연관표에 의한 권역간 거래액

(단위 : 백만원)

		수					요		計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권	부산권		
투 입	수 도 권	15,129,195	485,725	1,056,785	1,072,312	1,094,164	1,401,526	20,239,907	
	태 백 권	780,584	504,137	130,382	109,669	145,931	145,712	1,816,415	
	충 청 권	1,279,540	65,392	1,650,930	454,023	344,430	387,102	4,181,417	
	호 남 권	1,958,434	152,420	577,559	5,085,950	508,715	995,324	9,278,402	
	대 구 권	1,289,660	55,994	369,051	422,230	3,481,803	1,143,308	6,762,046	
	부 산 권	2,043,865	169,406	504,622	886,872	1,241,675	9,396,980	14,243,420	
計		22,481,278	1,433,074	4,289,329	8,031,056	6,816,718	3,469,952	56,521,407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0년 지역산업 연관표, 1984.

註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977년 자료)

대구권(대구, 경북, 1980년 자료)

충청권(충남, 충북, 1983년 자료)

부산권(부산, 경남, 1979년 자료)

호남권(전남, 전북, 1981년 자료)

태백권(강원도, 1983년 자료)

이들 기업들은 思想決定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分工場所在地域과는 큰 연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釜山에서 창출한 성장의 과실과 이익을 서울에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釜山地域의 財源이 서울로 유출되는 현상은 金融部門에서도 나타나는데, 예금은행의 예금액과 대출액을 비교할 때 예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釜山の 자금이 外地로 유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釜山所在 예금은행의 현황을 보면 釜山에 本社를 둔 은행은 1개소이고 점포수가 81개이지만,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은 특수은행을 합해 18개업소에 점포수가 171개가 된다. 은행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부산에서 예금된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현상은 제 2 금융권인 투자신탁, 증권(금융), 보험등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²⁵⁾

표 1은 6개 圏域別 地域産業聯關表로 본 圏域間 거래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釜山圏에서 首都圏으로 20,438억원이 투입된 반면, 首都圏에서 釜山圏으로 유입된 것은 14,015억원이어서, 6,423억원이 釜山圏에서 首都圏으

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 이것은 부산(권)의 재원이 수도권(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釜山の 都市成長過程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시설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釜山은 林野가 약 73%를 차지하고 都市計劃區域 468 km²(1980년 현재) 중 市街化區域은 128 km²로 27.5%에 불과하다. 또한 可用面積에 비해 많은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住宅問題가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 현재 주택부족률이 47%에 달하고 있다.²⁶⁾ 특히 不良住宅數가 5만 6천여호에 달해 부산의 주택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住宅問題의외에 工業用地不足, 道路不足과 交通混雜, 上水道問題, 環境問題 등도 심각하다.

釜山の 最高中心地였던 市廳부근은 釜山港과의 機能的 관계와 中心商店街로서의 전통과 集積의 이익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西面일대가 번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일대와 西面의 2개의 1차중심지와 차하의 도시생활권 중심지로 都市空間構造가 多核的으로 변화하고 있다.²⁷⁾(그림 1)

23) 朴杉沃, 1985, “韓國大都市地域의 工業立地政策에 관한 研究,” 國土計劃, 제20권, 제2호, p.216.
國土開發研究院, 1987, “釜山大都市圈 經濟分析,” p.150.

24) 河熊守, 1985, “釜山金融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釜銀調查, 제105호, 釜山銀行, p.9.

25) Ibid, p.36.

26) 釜山市, 釜山市統計年報 各년도 참조.

27) 金元經, 1983, op. cit., p.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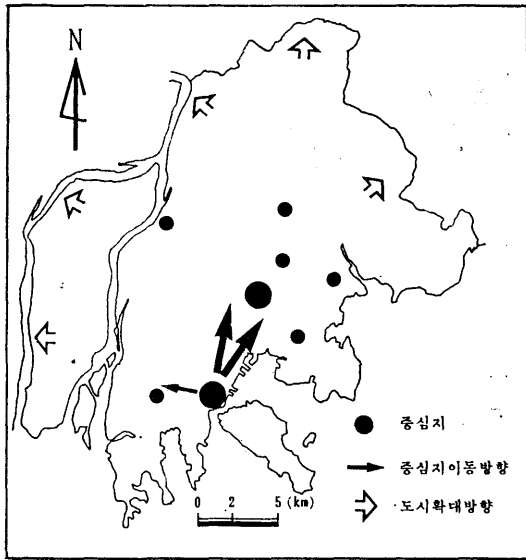


그림 1. 부산도시구조의 변화상황

釜山은 자체의 도시면적 뿐만 아니라 東南臨海地域의 中心都市로서 인근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다. 인접한 金海市·郡, 양산군은 부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釜山의 일일생활권에 포함된다. 울산, 마산, 창원, 진해 등은 釜山과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都市群을 형성하고 있어서, 경상남도 전체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釜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釜山과 이들 배후지는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부산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배후지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4. 非自生的 都市成長

釜山은 開港 이후 植民時期와 解放, 6.25 등의 일련의 社會變化²⁸⁾를 겪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閑村에 불과했던 부산은 開港이라는 外部的 힘이 작용하면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일본의 準植民都市로서 이후에는 日帝의 植民地收奪都市로서 변모해왔다. 일제식민시기를 거치면서 도시·경제구조는 식민지적

28) 이러한 국내적 사회변동은 국제질서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다.

목적에 의해 형성되었고, 식민시기에 형성된 도시·경제구조는 그 주체(日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하여 이후의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解放과 더불어 釜山은 新植民都市로 변화했고, 해방과 동란기에 걸치는 社會的 混亂期에 도시 기반시설이 결여된 채 釜山의 인구는 급증했다. 援助를 통한 外國에의 의존은 한편으로 도시자체의 對外依存性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都市成長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러한 의존은 從屬과 發展이 함께 이루어지는 矛盾을 낳았다.

經濟開發計劃과 함께 産業化와 관련한 도시인구 성장과 경제성장이 있었으나, 경제부문은 외국자본과 무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釜山의 自立的 成長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우기 수위도시인 서울과의 관계에서 意思決定權의 많은 부문이 종속되어 자율성은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釜山의 都市成長은 成長의 動因이 釜山자체의 內部的인 힘(internal forces)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外部的인 힘(external forces)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都市成長이 外部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釜山의 都市內部構造는 跛行性을 면하지 못했고, 성장잠재력이 성숙되지 못한 채 도시성장을 이끈 요인이 外部에서 가해져 釜山은 自生的·自發的인 都市成長을 하지 못하였다.

非自生的으로 진행된 都市成長의 結果 都市內部에는 外部影響에 의해 생긴 異質的인 構造가 이식되었고,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의 도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에 보이는 釜山經濟의 전국비중 약화와 침체현상은 外部的인 要因에 의한 都市化過程에서의 문제점이 露呈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5. 都市成長의 外部要因

釜山이 大都市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內部的인 要因과 外部的인 要因으로 나눌 수 있다. 內部的인 要因은 地理的인 利點과 큰 인구규모를 들

수 있다.

Urban Size Ratchet²⁹⁾ 개념에 의하면 釜山은 이미 自發的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天然의 良港,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이 쉬운점, 편리한 교통 등은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內部的 要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內部的 要因은 대외 문호개방(개항)과 植民地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具體化되었고, 주제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成長의 外部要因은 그 性格이 다양한데, 都市成長은 社會變動과 관련되며 구체적으로는 地域과의 관계, 經濟活動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開港, 貿易自由化, 6.25 등의 사회계변, 産業

化, 植民地經驗, 政治構造의 변화 등은 社會變化和 관련된 都市의 外部成長要因이다.

이러한 社會變動과 관련된 外部힘을 地域과 연결시킬 때 都市成長에 작용한 地域을 國際規模, 國家規模, 인근배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外交, 植民地로의 전략, 輸出對象國, 外國軍隊의 駐屯 등은 國家次元의 外部要因이라 할 수 있다. 한 國家內的 都市體系에서 個別都市들간의 상호작용(서울에 釜山이 從屬된 例)도 都市成長의 外部要因이 된다.

國家(혹은 政府)는 政治的 實體로서 行政機能이나 政策手段을 통해 都市成長 過程에 직접 관여한다.

社會의 變化, 地域間的 관계는 都市成長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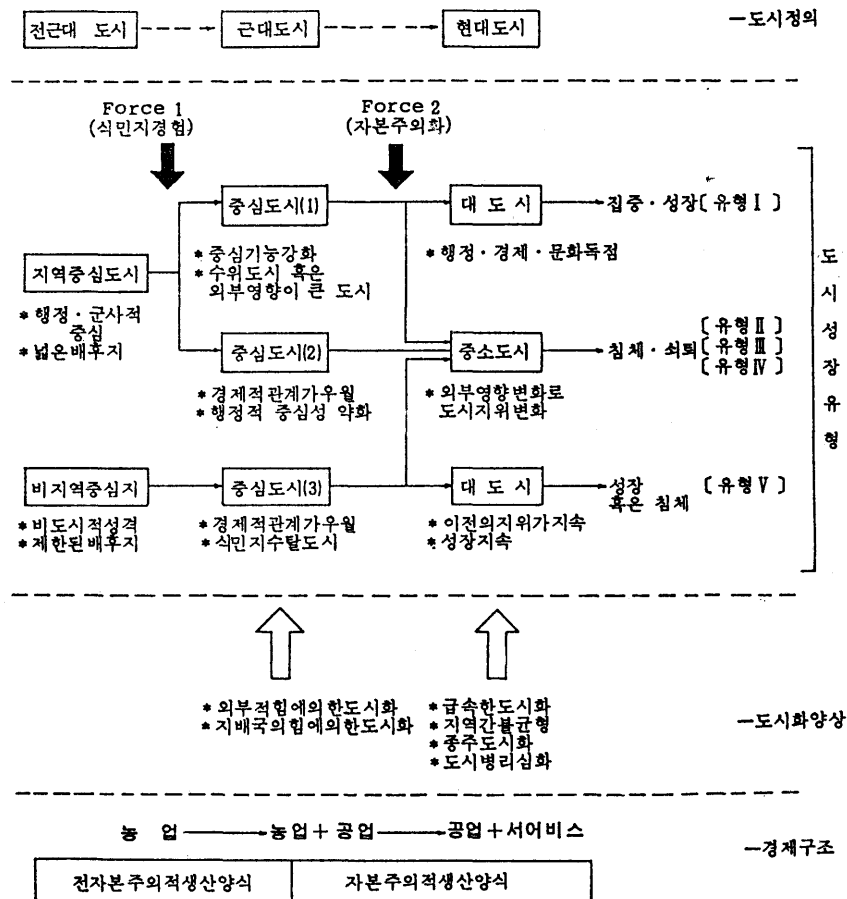


그림 2. 도시발달 맥락에서 본 도시성장의 유형

29) 金 仁, 1986, op. cit., p.303 참조.

에 영향을 주는 外部힘이고, 이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外部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수단은 經濟活動으로서 산업·무역·금융·원조 등이고 이 수단들은 都市成長過程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는 都市成長類型分類를 한 것이다. 韓國의 경우 植民地를 경험하기 전에는 前近代都市였고, 植民時期를 거치면서 근대도시로 변모하여 현재는 現代都市로 진행되었다. 前近代都市는 行政·軍事機能이 우월한 中心地였다. 이들 도시들 중 植民地經驗을 거치면서 中心機能을 강화하여 成長한 도시들이 있는 반면(中心都市 1), 植民地의 經濟機能關係가 우월해지거나 행정적 중심성이 약화된 도시가 생겨났고, 이후의 여건변화로 대도시로 성장하거나 中心都市로 침체 혹은 쇠퇴하였다.

유형 1의 都市는 계속적으로 中心都市의 지위를 가지면서 성장을 지속한 도시로 首位都市인 서울에 해당한다. 유형 2의 도시는 과거에는 주요행정도시였고 植民時期에는 米穀收集 등의 植民地收奪都市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도시들로서 현재의 地方行政中心都市들이 해당한다. 유형 3의 도시는 식민지이후에 中心都市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都市成長이 미약한 도시들이 해당된다. 都市的인 성격이 없었으나 植民時期를 거치면서 급속히 성장했던 도시들이 있다(중심도시 3). 이들 도시들 중 이후에도 계속 성장한 도시(유형 5)가 있는 반면 식민시기 이후 침체·쇠퇴한 도시들이 있다(유형 4).

釜山은 오랜 역사변천과정 속에서 都市的面貌가 갖추어졌다기 보다는 外部힘에 의해 성장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형 5의 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都市成長過程에 영향을 주는 外部要因들은 都市内部에 이식되어 内部的 要因으로 변화될 수 있다. 外部影響의 주체가 소멸하여도 그 영향은 都市内部에 잔존하게 된다. 日帝時代에 형성된 都市·經濟構造가 해방후에도 지속되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도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속에서 外部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한다. 모든 지역은 상호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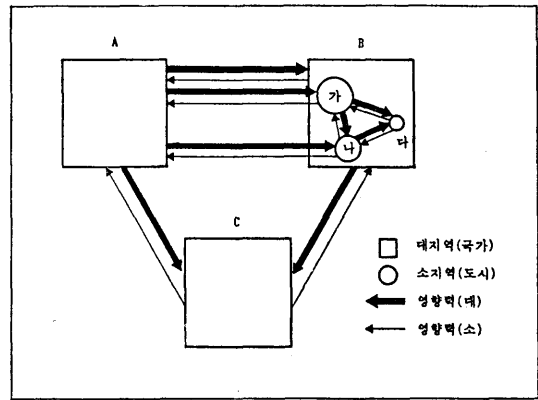


그림 3. 지역간의 상호관계

을 끼치지만, 영향력이 큰 지역이 적은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의 小地域은 上位의 地域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다 上位에 있는 지역의 영향도 받게 된다. 都市成長도 이러한 체계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전체 도시체계도 外部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그림 3).

都市成長에 영향을 주는 外部힘은 正의 外部힘(Positive external force)과 負의 外部힘(Negative external force)로 구분할 수 있다. 正의 外部힘은 都市成長과 都市構造의 다양화와 성숙을 가져오지만, 負의 外部힘은 都市構造의 跛行性과 構造的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외부힘들은 同一時間에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時間의 변화에 따라 外部힘의 성격은 正에서 負로 혹은 그 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外部힘이 都市構造의 변화와 都市成長에 영향을 주지만, 都市自體가 外部環境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構造의 問題와 都市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6. 結 論

本論文은 釜山의 都市成長過程이 非自生的이고 非自發的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釜山의 都市成長過程과 그 構造의 변화를 살폈고 外部的 成長要因을 정리하였다.

釜山은 人口規模가 350만에 이르는 韓國 제 2의 도시이자 경제적으로도 인구규모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가진 도시이다. 空間적으로 볼 때 首都인 서울을 견제하여 國土空間의 均衡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釜山の 位相에도 불구하고 釜山の 都市成長過程은 부단한 外部影響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外部影響들은 釜山都市成長의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해 왔다. 外部힘들은 성장 잠재력이 미약했던 한 지역에 큰 원동력을 부여함으로써 都市成長을 이끌었지만, 地域自體의 意志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도시성장을 유도했다.

外部힘에 의한 영향은 都市內部에 이식되어 都市構造를 변형시켰고, 內部的인 힘으로 변화하여 都市成長을 이끌었다. 外部힘의 변화에 따라 釜山은 植民都市, 避亂都市, 對外從屬的 貿易港으로서 世界體制의 周邊都市의인 性格變化를 해 왔다. 이러한 成長過程에서 釜山은 經濟·社會構造가 都市自體의 意思決定 보다는 外部環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外部힘에 從屬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의 관계에서 많은

역할들을 상실함으로써 대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成長이 發展과 동의어가 아니듯이, 都市成長 그 자체가 都市의 發展과 成熟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認識에서 都市成長過程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요구되고 發展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都市成長過程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은 跛行的 都市化와 도시체계의 발달 뿐만 아니라, 地域隔差와 不均衡問題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空間體系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釜山の 都市成長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釜山の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넓게는 開發途上國의 都市成長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本研究가 가지는 限界는 開發途上國 전반의 都市化過程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작업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된다.

A Study of Non-spontaneous Urban Growth Process and the Externality of Urban Growth Factors

Kim, Dong Hyun*

Summary;

This study examine and explain the urban growth processes and structural change of Busan City, which wa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urban growth process of Busan City has been non-spontaneous, through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 non-spontaneous characteristics of urban growth processes and define external urban growth factors. The main concept and the viewpoint of urban growth in this study are urbanization debates in Political economy and Dependency theory.

Population size of Busan is over 3.5million, the second largest in Korea(1986). The economic status of Busan also meet population size. Busan is the largest harbor in Korea, a core of the South-East Industry Region, and leads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at region.

In spatial perspective, Busan is checking the excessive growth of the Capital Seoul and takes charge of attempting the balance of the territory.

In spite of these status in Korea, however, the urban growth processes of Busan have successively related to external influences. The external influences have related to the social change and regions whose size are various; this includes word, nation, city; that, the opening of the nation, colonial history, war, industrializati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 forth. These external influences have been the real forces of urban growth of Busan.

External forces gave urban growth motive to a small region which had no potentiality of

development, and caused urban growth to that region. But this growth had no relation the purpose of that region's own.

The influences by external forces were implanted in a intraurban and transformed city structures. And the external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the internal forces and leded urban grow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ternal forces, the features of Busan have been changed to a colonial city (1910~1945), a refuge city (1950~1953) and a foreign trade port city(1961-now) which depend upon foreign, as a periphery city in the world-system.

In this growth processes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of Busan have reacted not on the purpose of city's own but on external environment. So the dependent characteristics on external forces are very distinct in Busan. Moreover, the Capital Seoul deprived Busan of many roles and functions which should possess, and Busan depend on Seoul. So Busan has not carried out its roles and fuctions as metropolitan. As growth doesn't mean development, so urban growth itself doesn't mean development or maturity of city structures.

With this recogn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new viewpoint and understanding of urban growth process and require new approach to development problems. The understanding of urban growth processes through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economy and Dependency theory will help us to understand not only development of urban system and undesirable urbanization, but also regional inequality. Moreover it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patial system.

Journal of Geography, Vol. 15, 1988.12, pp.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